

학부제와 교양교육

나를 발전시키는 진짜 학문

■ 김선혜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06학번)

‘대학 합격만 하고나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 3년 전 초조하게 대학 합격발표를 기다리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보려 애쓰면서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입학도 하기 전 첫 수강신청을 위해 시간표를 짜면서부터 시작된, 전공과 진로를 둘러싼 저의 고민은 전공이 정해진 현재까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08학번, 07학번 학생들 역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혹은 겨우 1학년을 넘긴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학원,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전공을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1년 정도의 유예기간동안 다양한 기초교양수업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통해 전공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셨고, 입학 후엔 무조건 영어 영문학과에 진입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영문과 수업을 듣게 되었지만, 동시에 저는 인문대 다른 과에서 개설하는 흥미로운 교양수업들을 수강 혹은 청강하는 방식으로 제가 모르는 전공분야가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곳인지 조금씩 공부해나갔습니다. 비록 인문계열1이었지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현대사의 이해’, ‘역사와 영화’ 수업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스페인어 권 문학을 맘껏 읽고 그 문학이 탄생한 사회적 배경들에 대해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사회’라는 수업도 들었습니다. ‘영문학 서설’ 수업을 통해서도 영미권 문학을 가볍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문학적, 역사적 요소로 연계된 여타의 교양수업들을 청강함으로써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학문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점점 좁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국문학을 가장 좋아하기도 했지만 타문화권의 문학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현재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국문학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공을 국어국문학과로 선택하되 타 학과 전공수업들을 겸하여 나름대로의 연계된 학문 연구를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상에 머무르고 있지만 교양수업들을 통해 발견한 타 전공들의 매력은 제가 맹목적으로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거나, 그다지 관심도 없으면서 취업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단순한 전공 선택을 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수업은 하나의 큰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양수업을 통해 복수전공을 하고 싶은 보석 같은 전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입학지원 시 했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전과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최소한 그 과목의 교양이나 전공탐색 과목을 수강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국어국문학과에 진입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전공 선택 일지 모르지만, 다양한 교양수업들을 통해 충분히 고민하고 탐색한 결과물인 만큼 제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선택한 아주 소중한 길입니다. 후배 여러분들이 이 글을 통해 ‘나를 발전시키는 진짜 학문’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학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7년이 된다. 학부제를 실시하면서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서울대학교는 신입생 세미나, 핵심교양, 옴니버스 강좌, 학생자율교육프로그램 등 학과를 넘어 다양한 학제 간 융합교육과 기초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제가 목표로 하였던 개방적이고 기본적인 교양 습득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가 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구현되었다고 생각되는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양 교육이 학부제 하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 선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학부제와 교양교육’이라는 주제로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열려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학부제

■ 오영진 (사회대 경제학부 06학번)

입시 시즌이 되면 자신이 지원하게 될 단과대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큰 고민에 빠진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자신의 전공만을 공부해야 하고, 다른 분야의 수업은 거의 들을 기회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입학 원서를 쓰게 된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단과대의 다른 전공에 관한 수업도 듣고, 자신의 전공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신기하면서도 놀라게 된다. 학부제는 대학에 와서 자신의 전공을 다시금 고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학부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탐색수업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찾고, 자신이 선택할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전공탐색수업만으로는 해당 전공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해당 교수의 관심사에 따라 교수의 전공 분야로 수업이 치우쳐서 실제의 전공과 다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학부제는 입시철에 비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전공과 진로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또한 학부제는 전공 공부의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듣고 자신의 관심사를 넓힐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양수업은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공 분야를 개척해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의 친구는 인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세계사 속의 이슬람 문명’이라는 수업을 듣고 동양사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복수전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교양은 자신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뿌리를 지탱할 지적 토양이 된다. 교양을 통해 타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성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양은 전공만큼이나 자신의 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학부제는 전공 때문에 소홀해질 수도 있는 교양에 대한 문호의 턱을 낮추어 교양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필자는 1학년 2학기에 ‘서양 철학의 이해’를 수강하였는데, 이 수업에서 철학이 어떤 학문인지, 왜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 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 뒤에도 틈틈이 다양한 수준의 철학서를 보면서 철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제 때문에 원하는 전공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진입만을 위해 대학에 와서도 경쟁에 시달리며 학점 잘 준다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 관리에 열을 올리는 것이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다. 전공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필수 과목의 이수가 늦어 전공지식 습득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을 다시 설계 해볼 시간을 주고, 다른 학문에 대해 개방된 시각을 갖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갈 기회와 풍부한 교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지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측면에 있어서 학부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양날의 검인 것이다. 이전의 학과 체제로 돌아가도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학부제도 마찬가지이다. 학부제를 비판하고 입시 때 학과를 결정하게 하자고 회귀하는 것 보다는, 학부제에 지적된 단점을 개선하고 장점을 잘 살려 보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부제의 취지를 잘 살려 더 좋은 발전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제와 전공진입 경쟁

■ 김구슬 (사회대 지리학과 07학번)

나는 사회과학대 인류지리학과군으로 2007년 입학해 올해 초 지리학과에 전공 진입하였다. 사회대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예약으로 들어온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 학년을 마치고 전공진입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 나는 인류지리학과군이었고 그 중에서도 '컷'이 낮은 지리학과 지망생이었으니 전공진입에 대한 압박은 거의 느끼지 않았다. 전공 진입 학점 컷의 압박이 없으니 수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적으로 내 흥미에 있었다. 때문에 수강신청에 실패한 경우를 제외하곤 거의 모든 수업에 만족할 수 있었고 대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던 사회과학계열 동기들의 사정은 조금 다른 듯이 보였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일부는 1학년 2학기에 재수강을 두 개나 해야 했고, 일부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느라 바빠 과방에서 멀어져갔다. 나는 그들 대부분이 전공 진입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나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보는 동기가 생기기도 했고, 듣고 싶은 수업도 학점이 안 나올 것 같아 수강철회를 해야만 했던 친구도 있었다. 그들의 대학 생활은 적어도 나의 그것에 비해 조금 더 고등학생의 생활과 닮아 있었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들은 왜 그리도 불안해하며 일 년여를 보내야 했는가. 더욱이 불안한 일 년을 보내고도 전공진입에 실패하여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선발기준이 학점으로 단일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전공에 대한 열의나 적합성 등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학과에 가려면 경제원론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동기 중 경제올림피아드 출신의 경제학 수재는 경제원론에서 받은 A+에도 경제학과 진입에 실패했다. 물론 상위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간의 경쟁은 '상위학과'를 상징해버리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는 이상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학부제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그 경쟁은 그들이 대학을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마무리 지어졌을 테고, 내 동기들의 1학년 시절은 조금 더 풍족했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몇몇 학과는 1지망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한 자릿수에 머물기도 한다. 다른 학과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진입하게 된 학과와 학과 공부에 학생들이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입학한 이후로 줄곧 지리학도를 생각했고 때문에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리학도로 형성해 왔다. 만약 내가 인류학과에 가야 했다면 꽤나 긴 적응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문의 발전, 학교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학부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이 애초에 희망하던 전공이 바뀌었다거나, 접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타 전공의 수업과 좋은 교양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제의 장점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2전공 역시 사실상 의무화된 상황에서 학교를 학문의 장이 아닌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학제개편들이 이루어져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경쟁이 단순한 효율증대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식이 확산되어간다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학부生在 보는 교양강좌 – 학부제와 교양강좌

■ 기경서 (인문대 인문계2 07학번)

현재 서울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강좌는 ‘교양’이라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평균 교양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폭넓게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 설치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중시되는 현재의 학문적 요구에 걸맞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양 지식을 쌓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서울대 내에 개설된 교양강좌의 개수는 다른 대학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외연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 교양 강좌가 타교에 비해서 압도적인 양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과연 그 설치 목적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교양 강좌는 수강 신청 시 몇몇 인기 강좌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과목들이 그 강의의 질적 수준으로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강 인원 부족으로 폐강되는 운명에 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교양 강좌가 제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한가의 여부는 학부제의 실시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학부제의 시행은 전공진입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각종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으라는 그 기본 발상과는 전혀 다르게 전공진입 줄 세우기, 전과를 위한 학점 따기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인문대학의 경우, 영문과 같은 소위 취직 잘 되는 인기 과에 진입하기 위해 전공진입 경쟁이 과열되자 2004년도부터 여문계열인 인문계1, 역사철학계열인 인문계2로 분리모집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문계열인 인문계1에서는 학점경쟁이 격화되어 학생들은 폭넓은 분야의 교양 강좌를 수강하기보다는 학점 잘 주는 강의를 주로 찾아 수강하려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학점이 전공 진입과 함께 중시되다 보니, 학부생들은 교양과목의 평가방식에도 민감해졌다. 전공과목과 다른 평가방법 (상대 평가제를 통한 학점의 일정 비율 배분 규정)의 시행은 전공진입과는 무관한 교양과목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조차 평가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쉽게 수강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학부생들은 차라리 자신이 진입하려고 마음먹은 과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졸업하기에도 유리하고 전공진입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실상을 보면, 학부제와 교양 강의에 대한 기본 구상과 시행되는 현실의 괴리가 현재 교양 강좌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점 심화되는 취업 경쟁에 대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학부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대학이 학부제와 교양 강좌를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그에 따른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